



“인터넷마케팅 시장 확대에 최선 다할 터”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임의단체였던 '인터넷마케팅협회'가 최근 정보통신부 산하 사단법인 '한국인터넷마케팅협회'로 탈바꿈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그동안 수행해 왔던 인터넷마케팅 활성화 사업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특히 인터넷마케팅협회는 창립 첫 사업으로 '다음의 온라인우표제 실시에 따른 인터넷 환경의 변화'라는 주제로 리서치 결과를 발표해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초대 협회장으로 선출된 김태운 회장을 만나 협회의 사업목표 등을 들어봤다.



취재 신종훈 기자

“인터넷마케팅업체로서 다음의 온라인우표제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지금 당장 돈을 내야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인 웹 메일 서비스업체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여전히 논란의 불씨가 살아있는 다음의 온라인우표제에 대해 김태운 한국인터넷마케팅협회장(KT인터넷 대표이사)은 기본적으로 협회는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한다고 밝혔다. 때문에 인터넷마케팅협회는 온라인우표제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폐지토록 하자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토대로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보자고 제안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인터넷마케팅협회는 협회 창립 첫 사업으로 지난 7월말 제4회 인터넷마케팅포럼을 개최, 온라인우표제의 성과에 대한 리서치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2755명의 네티즌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는 다음의 온라인 우표제 실시 이후 실제로 스팸이 얼마나 줄었고, e메일마케팅의 효율성 제고에 얼마나 기여했으며 인터넷업체가 실시한 계정전환운동이 성공적이었는지 여부 및 효율적인 e메일마케팅을 위한 다음과 업계의 공존방법을 모색하겠다는 목적에서 실시됐다.

당초 협회는 이번 포럼에서 다음측과 e메일자유모임 등 반(反)다음측이 함께 참여하는 패넬토의도 제안했지만 패넬구성에 실패해 무산됐다.

인터넷 광고시장 활성화 '급선무'

인터넷마케팅협회의 전신은 지난해 4월 만들어진 전경련 산하 인터넷마케팅협회였다. 임의단체로 조직됐던 협의회가 법적 구속력을 가진 사단법인으로 거듭난 것.

초대 협회장으로 선출된 김태운 회장은 “우리나라 전체 광고시장이 약 6조원 가량으로 추산되지만 인터넷 광고시장은 아직 3% 정도에 불과하다”며 “이는 기업들이 아직 인터넷마케팅의 효율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협회의 가장 큰 목표는 회원사들과 함께 인터넷마케팅의 잠재력을 널리 알리고 시장기반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협회는 인터넷마케팅 기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신속하게 회원사에 제공해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협회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인터넷마케팅 산업의 현황과 기술동향, 향후 전망 등을 정리한 인터넷마케팅 백서도 매년 발간할 계획이다. 또 연간 4회에 걸쳐 인터넷마케팅포럼을 개최하고 인터넷마케팅 페스티벌도 개최할 방침이다.

김 회장은 “약 1800억원 정도로 추산되는 인터넷 광고시장을 200여개 업체가 나눠 갖고 있다”며 “인터넷업체들의 수익이 아직까지는 대부분 광고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이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인터넷산업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인터넷마케팅협회가 이와 함께 가장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가운데 하나는 인터넷마케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터넷마케팅관리사' 과정의 개설이다. 인터넷마케팅 시장 환경은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이를 위한 전문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한때 온라인 광고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많은 수의 전문인력들이 온라인으로 왔지만 인터넷산업의 침체와 함께 이들이 다시 오프라인으로 돌아갔다”며 “온라인 광고시장은 연간 30% 이상 성장하고 있지만 이를 받쳐줄 전문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이번 마케팅관리사 과정 개설을 위해 올 하반기부터 교육과정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교육과정을 개설한다는 목표 하에 관련 교재를 개발 중이다. 또 회원사의 임직원들을 위한 전문교육과정도 개발하고 있다.

김 회장은 “회원사간 정보공유와 백서 제작을 기본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당분간은 전문인력양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올해는 인터넷광고 활성화의 기반을 다지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